

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6. 9. 14.(월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	김수미	☎ 760-7601
		특화작목육성팀장	박남수	☎ 760-7621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참깨 기계화로 노동력 줄이고 새로운 소득원 키운다

- 수확 노동력 98% 절감...참깨 ‘하니올’ 새 소득작목으로 육성 -

□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참깨 신품종 ‘하니올’ 기계화 생산단지를 지난해 19ha에서 올해 50.7ha로 넓혔다. 파종부터 수확까지 기계로 하면서 손이 많이 가던 참깨 농사의 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.

○ ‘하니올’은 꼬투리가 익어도 종자가 잘 떨어지지 않아 콤바인 수확이 가능하고 생육기간이 90일 가량으로 비교적 짧은 품종으로, 농업기술원은 기계화로 일손을 덜고 재배 순서를 바꿔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기 위해 보급을 늘리고 있다.

※ 재배 순서 개선: 월동채소(9~4월) → 참깨(5~8월) + 월동채소(9~4월)

□ 동부농업기술센터는 5월 기계 파종을 시작으로 8월 하순 일시 수확을 위한 무인기 건조제 살포, 일손을 더는 콤바인 수확까지 단계별로 기계화 재배기술을 적용했다.

○ 지난 5월과 9월 제주시 구좌읍과 서귀포시 성산읍 시범포장에서 농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계파종·기계수확 시연회를 열어 현장 적용성을 확인했다.

□ 그 결과 10a당 수확량은 63kg으로 최근 5년 전국 평균(50.4kg)보다 25% 많았고, 기계수확으로 수확에 드는 일손을 기존 방식보다 98% 줄였다.

※ 최근 5년 전국 참깨 평균 생산량(10a 기준): 50.4kg(국가데이터처, 2021~2025년)

※ 수확시간(10a 기준): 기존 32.6시간 → 기계 0.5시간

○ 일손 부담이 큰 수확 작업을 기계로 대체해 참깨 재배 부담을 크게 낮췄으며, 월동채소를 심지 않는 기간에 참깨를 재배해 농경지 이용률을 높이고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.

○ 실증에 참여한 한 농업인은 “파종과 수확을 기계로 하니 부담이 크게 줄었다” 며 “수확이 빨라져 다음 작물을 재배하는 데도 부담이 덜할 것 같다” 고 말했다.

□ 농업기술원은 이번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기계화 재배기술을 보완하고 생산단지를 계속 넓힐 방침이다.

○ 안정적인 콤바인 수확을 위해 참깨 꼬투리가 60% 가량 익었을 때 건조제를 고르게 뿌리고, 이랑 재배로 어린 모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막는 등 현장 재배기술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.

○ 2027년에는 생산단지를 100ha까지 넓히고 월동채소와 참깨를 이어 짓는 재배 방식을 정착시켜 국내산 참깨 생산 확대와 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.

□ 김태균 농업기술원장은 “참깨 ‘하니올’ 기계화 생산단지를 넓혀 농업인의 일손 부담을 줄이고 월동채소를 심지 않는 기간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 창출이 기대된다” 며 “앞으로 기계화 재배기술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참깨가 제주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” 고 말했다.